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92호)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79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1. 김용만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792호)	1
2. 강경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879호)	5
III. 검토의견	8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8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8
3. 주요 내용 검토	9
※ 참고자료	12
1.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 현황	12
2. 평화의 소녀상 개요	13

I. 제안 및 회부

1. 김용만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792호)

가.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73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7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17일

2. 강경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879호)

가.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등 17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8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김용만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792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

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조형물이자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물이라고 인식함.

이탈리아 최초이자 해외 14번째인 스티티노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환영하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의 의미에 공감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세계시민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등에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에 대해 철거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녀상 건립 방해와 기존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음.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 및 철거 요구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역사부정 행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져 옴.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임.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대일굴종외교 등 퇴행적 행태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

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등의 즉각적인 중단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및 국제사회(유엔 CEDAW, 인권이사회 등 권고)가 요구하는 대로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소녀상 건립 등 기념과 추모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 철거 요구 행위에 대응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진실과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의 소녀상의 전세계 확산과 영구적 존치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상존하는 전시 성폭력 근절 등 평화와 인권의 가치

를 알리는 활동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현지의 일본대사관과 우익 단체를 통한 압박과 항의, 소송,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자행하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존치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 미국하원결의안 발의 및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관련 전시회 개최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함.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협정, 2015한일합의 등으로 해결된 일이며, 한국에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왜곡된 영어 자료를 만들어 해외 박물관, 정부 등으로 유포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일본 정부의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제안함.

또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

적인 존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함.

2. 강경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202879호)

주 문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지속되어 왔고, 최근 미테구는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온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년 3월 기습적으로 철거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

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음.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

그런데 소녀상이 설치된 곳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기 위한 일본 정부 측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소녀상이 많음.

최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서도 2020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할 것을 통보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또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외교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김용만의원 및 강경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두 건의 평화의 소녀상 관련 결의안은 ① 일본 정부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 행위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요구하고, ②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적 존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요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③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거리 투쟁을 이어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現 정의기억연대)에 의해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졌으며,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모 및 기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¹⁾에서도 건립

주체·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오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건립 방해와 함께 이미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력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2020년 9월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의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區) 공공부지에 설치된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음.

3. 주요 내용 검토

김용만의원안 및 강경숙의원안은 각각 주문 제1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중단을 요구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결의안 주문 제2호의 경우 김용만의원안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사죄와 배상, 적극적인 기념과 추모를 촉구하고 하는 한편, 강경숙의원안 주문 제2호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적 존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1) [참고자료 1]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 현황 참조

< 독일 베를린 미테구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 후 경과 >

일자	주요 내용
2020.09.28	설치 및 제막식
2020.10.07	미테구청, 철거 명령 공식 송부(~10.14 기한) ※ 당시 미테구청측, 소녀상의 비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하였으나 해당 비문이 독일-일본 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바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
2020.10.12	코리아협의회, 독일 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0.10.13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 철거명령 집행 정지
2021.07월	코리아협의회, 소녀상 설치 1년 허가 연장 신청 / 미테구청 수용
2022.11월	미테구청, 2024년 9월 28일까지 2년 허가 연장
2024.06월	미테구청장, 2024년 9월 28일 이후 소녀상 철거 방침 구두 통보
2024.09.19	미테구의회, 소녀상 설치 용인 촉구 결의안 및 주민청원 채택 ※ 구의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
2024.09.24	미테구청장-코리아협회 대표 면담 ※ 소녀상 사유지 이전 등 대안 관련 의견 교환
2024.09.30.	미테구청장, 코리아협회 측에 소녀상 철거명령 통지문 공식 송부 (10월 31일까지 미철거시 3,000유로 과태료 부과 예정)
2024.10.15.	코리아협회, 법원에 가처분신청 제기

김용만의원안 주문 제3호와 강경숙의원안 주문 제3호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 행위 및 철거 요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김용만의원안 주문 제4호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평화의 소녀상의 전세계적 확산과 영구적 존치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 문제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아울러, 두 건의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촉구 등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결의안으로 통합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외교부는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 차원에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추진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68

【참고자료 1】 평화의 소녀상 해외 설치 현황

※ (기준) 2024.9.20.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외 소녀상

연번	설치 시기	설치주체	지역
1	13.07월	가주한미포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공원
2	14.08월	미시간 위안부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시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내
3	15.08월	불명	중국 하이룽장성 하이린시 한중우의공원내 역사전시관
4	15.11월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 토론토시 한인회	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관 입구
5	16.08월	시드니 소녀상 추진위원회	호주 시드니 애쉬필드 연합교회
6	16.10월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제2차대전사 보존연합회, 상하이사범대	중국 상하이 상하이사범대학내 위안부역사박물관 인근
7	17.03월	독일 평화의소녀상 건립 수원시민 건립추진위원회, 독일 평화의소녀상 독일추진위원회	독일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 인근 빈젠트의 네팔-히 말라야 파빌리온 공원
8	17.06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애틀랜타 브룩헤이븐시 블랙번 시립공원
9	17.10월	뉴욕한인회	미국 뉴욕주 맨해튼 한인회관내 한인이민사박물관(MOKAH)
10	19.02월	개인	필리핀 보라카이 파나이섬 북부 카티클란 인근 사유지
11	19.10월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원회	미국 버지니아주 에넬데일 한인타운
12	19.11월	멜번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화성시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호주 멜번 한인회관 입구
13	20.03월	코네티컷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코네티컷주 한인회관 입구
14	20.03월	라인마인 한인교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 정문
15	20.09월	코리아협의회	독일 베를린 중앙구(미테구)내 교차로
16	23.03월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관 부지
17	24.06월	정의기억연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티티노시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평화의 소녀상 개요



□ 명칭 : 평화의 소녀상 / (영문) Statue of Peace

※ 작가 : 김운성, 김서경

□ 상징별 의미 ※ '정의기억연대'측 설명 인용

- (소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납치된 어린 피해자들의 모습
- (왼쪽 어깨의 새) 자유의 평화의 상징 / 저승-이승을 넘나들며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현재(우리)를 잇는 연결고리
-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 가족과 고향의 꿈을 떠나 단절되어야 했던 아픔
- (움켜쥔 두 손)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맞서는 분노 /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하겠다는 다짐
- (뒷꿈치를 든 맨발)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어 겪어야 했던 고난 /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과 사회의 편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억울한 현실 상징
- (빈 의자) 과거-현재-미래의 연대 / (세상을) 떠나가신 할머니들의 자리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 상징
- (바닥의 그림자) 오랜 세월 정의 실현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의 모습이자 쉽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를 의미 / 가슴의 나비는 슬픔·괴로움을 안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혼 표현